



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7일 '추추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2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16일 수원 선거 캠프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노사 분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 조웅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16일 오이도 전통수산물시장에서 상인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장진우 기자·각 후보자 캠프 제공

# 경기도지사 후보들 조직·정책·민생 앞세워 '세 몰이' 분주

후보등록 첫 주말 본격 선거전 돌입 추미애, 선대위 띄우며 '압승' 다짐 양향자, 반도체 현안 전면 부각 조웅천, 전통시장 찾아 민생 행보 홍성규, 진보당 선거 사무소 방문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며 경기도지사 선거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각 후보들이 등록 직후 첫 주말부터 도내 전역을 돌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후보들은 지원 유세, 민생 현장 방문, 정책 메시지 발표 등을 병행하며 초반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주말 선거전의 핵심은 '조직 결집'과 '정책 이슈 선점'으로 요약된다. 후보들은 당내 결속을 다지거나 핵심 산업 이슈를 부각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민심 접촉면을 넓히는 등 각기 다른 전략으로 선거 초반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존단체장 후보 지원 유세에 집중하며 당내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지난 16일에는 정순욱 의왕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시작으로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 잇따라 참석하며 '원팀 승리' 강조에 나섰다. 이어 17일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와 만나 정책건의서 전달식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에는 추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추추 선대위'를 공식 출범해 공식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추 후보는 오후 3시에 진행된 출범식에서 "경기도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민주당 원팀 '추추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는 날"이라며 "어떤 선거의 선대위와 비교해도 추추 선대위가 가장 든든하고 가장 훌륭한 선대위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 들어올 때 저어라"는 말처럼,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이, 경기도가 크게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사법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왔다"며 "이제 그 책임감과 추진력을 경기도를 위해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주말 내내 '반도체'를 지방선거 핵심 선거 의제로 내세우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양 후보는 지난 16일 삼성반도체 파업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노사 분쟁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노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삼성반도체는 한 기업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삼성반도체 공급이 흔들리는 순간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충격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17일 오후에는 지역 후보자, 국회의원과 함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반도체 역차별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 후보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사실상 원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안보 핵심 산업"이라며 "정치 논리로 산업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조웅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도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도민들의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조 후보는 지난 16일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 시흥 오이도 전통시장을 방문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17일에는 김포북면시장을 찾아 직접 인사사를 나눴다. 이어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도 주말 동안 김재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개소식과 한현호 양주시의원 후보 개소식 등에 참석해 진보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 등록 이후 본격적인 유세전에 합류했다. 이순만·장진우 기자

## 초접전 평택을 재선거... 후보 5인 '표밭 다지기' 사활

후보등록 후 첫 주말 유세전 집중 행사·종교시설 등 돌며 지지 호소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5명은 후보 등록후 첫 주말인 17일 지역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역 행사와 지역내 각종 단체를 찾아 한 표를 호소하며 분주한 하

루를 보냈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전 포승레포즈공원 축구리그 현장과 심복사 법회에 참석한 뒤 오후 세계인의 날 행사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김대중·노무현·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이어 중도실용과 국민통합의 최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새벽 안중배

드민터·초등 동문회 인사와 교회 예배를 시작으로, 평택시민환경연대 간담회, 장애인부모회 정책 간담회 등에 참석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오전 5시50분 안중 마라톤 동호회 방문을 시작으로 교회 예배, 환경단체·민중노총 건설노동자 정책 협약식, 장애인부모회·평택의사회 방문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조 후보는 개소식에서 "결코 굽히지 않

고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안중성당 미사와 평택시민환경연대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평택에 공약지가 썩었다. 정치과 중심으로 악자와 주민을 위한 강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는 안중 마라톤·배드민턴 야유회 인사와 교회 예배, 불령대회, 함박산공원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화철 기자

## "시민 열망 모아 수원 대전환 완성"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후보

후원 모금 4일 만에 한도액 달성 '성과·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마음, 내 가족이 자랑스러워할 도시를 만들고 싶은 마음, 수원이 더 당당히 빛나길 바라는 마음이 모여 후원금 조기 마감이라

더불어민주당 이재준(사진) 수원시장 후보가 후원금 모금 4일 만에 법정 한도액을 달성했다. 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후원금이 조기 마감 됐다. 진심으로 고맙다"며 "보내주신 성원은 단순한 자금이 아니다. '수원 대전환을 완성해달라'는 수원시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캠프는 후원금 한도액 달성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성, 청년 등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보다 나은 수원을 바라는

는 성원으로 이어졌다"며 "뜻을 모아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원 대전환의 완성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재준이 반드시 이루겠다"며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선거사무소에서 두 번째 정책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중심 선거'의 기초를 이룰 계획이다. 유창현 기자

## "초·중·고 맞춤형 '학부모 교육' 대폭 강화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맞춤 강좌·전문 상담 등 윈스톱 지원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강의 확대



임태희(사진)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성장 단계별로 도움이 되는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

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미래교육캠프는 17일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성장 단계별로 꼭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입시, 진로 등에 대한 정보를 지인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고도화 하고, AI 맞춤 지도법, 올바른 스마트폰 활용법, 디지털 인성교육 등을 무료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맞춤형 가정,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을 위해 온라인 강의 연계를 확대해 시간과 지역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온라인 접속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부모·자녀 간 소통 문제와 생활·교육 습관 등 양육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역할은 '경기학부모지원센터'가 맡게 된다. 임 후보는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가장 중요한 교육공동체"라며 "더 이상 정보 부족으로 불안해지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직접 나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희 기자

## "탄소중립 실천·친환경 도시 조성"

신계용 과천시장 후보

녹색공원 조성·수변공간 정비 추진 전기버스·충전시설 확대 등 약속



국민의힘 신계용(사진) 과천시장 후보가 지난 16일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한 환경 공약을 제시했다. 신 후보는 환경 정화 활동 캠페인에 참여한 자리에서 "탄소중립 실천은 살기 좋은 과천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재직 당시 공원 리모델링과 완충·경관녹지 정원화, 탄소중립 공

유데이 운영, 다화용점 공유 지원 강화, 공공시설 내 텀블러 세척기 도입 등을 추진한 것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과천시는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도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모델을 만들어 친환경 도시 과천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상범 기자

## "孝 중심 인성·문화 도시 만들겠다"

박태경 화성특례시장 후보

화성 용주사 연등음악축제 참석 전통문화 계승·지역 화합 강조



국민의힘 박태경(사진) 화성특례시장 후보가 지난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경내에서 열린 '2026 화성특례시 연등음악축제'에 참석해 불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도 함께 자리했다. 화성특례시 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통 불교문화와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지

역 대표 문화행사로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지역 불자와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연등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박 후보는 이날 대웅보전을 참배한 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공동체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효 중심 인성·문화 도시'로 브랜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순철 기자

## "생활권 중심 건강체계 구축할 것"

김성재 의왕시장 후보

생활밀착형 '건강특별공약' 발표 내손·부곡동 보건지소 설립 추진



김 후보는 보건지소를 통해 건강상담과 예방접종, 기초 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번 건강특별공약에는 ▲내손·부곡 보건지소 설립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취약계층·어르신 예방접종 확대 ▲경로당 한방주치의 제도 추진 ▲보훈가족 의료바우처 지원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맨발 걷기길 및 생활건강 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는 "예방 중심 건강정책은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라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도시 의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상범 기자

국민의힘 김성재(사진) 의왕시장 후보가 17일 '건강특별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핵심은 내손동·부곡동 보건지소 설립 추진이다. 김 후보는 "시민들이 건강 문제 때문에 먼 곳까지 이동하며 불편을 겪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어르신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까운 생활권 안에서 건강관리와 예방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왕은 빠르게 성장한 도시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공공보건 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치료 중심을 넘어 시민 건강을 미리 지켜주는 예방 중심 건강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순철 기자